



제 407 호 2015년 11월 11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안산소식

수험생과 시민을 위한
'드림 인 안산 파크콘서트'

04면 생태·관광

우리 콩으로 바른 먹거리 만드는
'상록수된장마을'

06면 문화·예술

김연자 시인, 인문학을 말하다

08면 숲의 도시, 안산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화정천' 이야기



주말 오후, 안산호수공원에서 양재상·김진호·이종보 가족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수험생과 시민을 위한 드림 인 안산 파크콘서트

Dream in Ansan PARK CONCERT

11월 13일 오후 6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6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수험생과 시민들을 위한 초대형 음악회 '드림 인 안산 파크 콘서트(DREAM IN ANSAN PARK CONCERT)'를 연다.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날 파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수능시험으로 지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토닥토닥 프리허그(Free Hugs)'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 슈퍼스타K가 낳은 가수 박보람, 흥대 인디밴드 '분리수거' 등이 대거 출연하고 국민가수 인순이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으로 지역에서 보기 힘든 대형 무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이날 공연에서는 대학로의 인기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공연팀이 출연하여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무대에 올린다.

개그맨 김지호, 개그우먼 박소영이 진행을 맡아 수험생과 안산시민들에게 톡톡 튀는 진행으로 큰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메르스 관련 피해지역 파크 콘서트'사업을 안산시가 신청·유치한 공연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티앤비컴퍼니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 문의: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068

「소외계층 문화순회 추경사업」 메르스 관련 피해지역 파크콘서트



DREAM IN ANSAN

PARK CONCERT



분리수거



여자친구



빈



박보람

2015년 11월 13일(금) 저녁 6시

안산문화광장(전망대광장)

문의 : 031) 481-2068 (안산시 문화예술과)

인순이 | 여자친구 | 박보람 | 퓨전국악그룹 퀸 | 흥대인디밴드 분리수거 | 지킬앤하이드 걸라콘서트 | MC 개그맨 김지호 & 개그우먼 박소영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소외계층 문화순회 추경사업-메르스 관련 피해지역 파크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연지원 사업입니다.

주최



휴대폰 충전에 살균까지 '일석이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안산시는 11월부터 휴대폰 사용자를 위해 시청 및 사업소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 총 35개소에 휴대폰 살균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방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기종 및 크기에 관계없이 동시에 4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특히 스마트폰에 많은 세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충전과 살균 소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 추세에 맞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살균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면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정보통신과 ☎ 031-481-3100

츄츄안전망 서포터즈가 있어 안전해요



안산시 츄츄안전망서포터즈는 지난 10월 26일 안산시 관내 삼일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 인근에서 5명의 서포터즈가 참여한 가운데 위험환경개선사업을 했다. 안산시는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으로 2015년 11개 초등학교와 8개 지역아동센터

를 방문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 교육을 해왔다. 교육을 통해 아동 스스로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구분하고 직접 안전지도도 만들어 보면서 아동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츄츄안전망 서포터즈는 2011년 지역사회 시민구성으로 결성되었으며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아동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날 서포터즈는 삼일, 본원, 초당, 슬기, 호원, 초지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와 담벼락의 낙서제거와 환경미화작업 및 초등학교 안전 모니터링을 하며 아동위험환경개선을 실천하였다.

• 문의: 안산시 여성가족과 ☎ 031-481-2260



2015 전국음식 맛자랑 경연대회 '성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준 높은 음식 선보여



지난 10월 24일,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2015 전국 음식 맛자랑 경연대회'가 열렸다.

1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는 신세대 음식을 개발·육성하고자 학생부 경연주제를 식사대용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정했다. 외식부는 각 업소의 대표·신규메뉴로 경연에 참가했다.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외식부 20팀과 학생부 30팀은 오전 9시부터 140분간 경연을 펼쳤다. 한쪽 팔에 깃스를 한 채 출전한 참가자는 더욱 바빠 다 른쪽 손을 움직였고, 10명의 심사위원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요리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조리의 과학성, 맛, 난이

도, 창의성, 실용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학생부는 '부장님 옆자리 다음날', '흑임자 만년 돼지', '할로윈을 탈출한 단호박' 등 톡톡 튀는 작명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작품으로 표현됐다.

이병순 심사위원장은 "바로 상품화해도 좋을 만큼 테이크아웃 용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온 학생들 메뉴가 기발합니다. 외식부 출품 음식들도 메뉴 개발 등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음식을 선보여 안산의 숨은 맛을 찾고 알리는 대회 취지에 잘 맞아떨어지는 경연이 되었다."고 말했다.

외식부에서는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6팀, 동상 11팀이 선정돼 상장과 외부

부착용 표지판, 시상사진액자를 받았으며, 학생부는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4팀, 동상 6팀과 장려상 17팀이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외식부 대상에는 '더덕애장어'를 출품한 고잔동 소재 해솔(김영관, 김청호) 팀이, 금상은 '능이오리백숙'을 출품한 이동 소재 송호황토마을(손가람, 김숙임) 팀과 '물회'를 출품한 이동 소재 용궁물회전문점(신명희, 임동욱)이 차지했다.

예선전부터 경쟁이 치열했던 학생부는 '한입도시락'을 출품한 조하영, 김채은(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팀이 대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롤롤'을 출품한 오은지, 최하나(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팀과 '따라해봐요'를 출품한 유

효정, 임현지(신안산대학교) 팀이 금상과 상금 80만 원씩을 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테이크아웃으로 대상을 받은 학생부 작품은 안산시 즉석 제조가공업 등에게 레시피 교육을 통해 널리 보급할 예정이다. 외식부 수상작은 맛집 책자에 수록해 안산시 대표 맛집으로 홍보한다.

외식부 대상을 받은 김영관 씨는 "시판되지 않은 메뉴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장어의 느끼한 맛을 잡는 데 흔히 쓰이는 생강이나 껌잎이 아닌 미나리·더덕장아찌를 곁들인 것이 신의 한수였다."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개발한 음식이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날 야외 부스에서는 안산시 개발음식인 '성호이의 삼두밥상', 잊혀져가는 고유 가정음식, 외식업지구 개발메뉴 '대부도 대표 향토음식' 시식 체험과 우수외식업지구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우리밀 바지락 칼국수 시식, '아빠와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 요리캠프 등 풍성한 먹거리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올림픽기념관 특설무대에서는 음식거리 홍보, 마술 공연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문의 : 안산시 식품위생과 (☎ 031-481-223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웃이 답이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산 만들기' 위한 시민 토론회 열려



안산시는 '이웃이 서로 돕는 복지공동체 구축과 이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주제로 지난 10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안산시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발달 장애 아들을 남기고 사망한 50대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 전명숙 서기관이 '지역사회 민관협력 동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경기복지

재단 오민수 책임연구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박상호 관장,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선옥 위원, 안산시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성우 소통위원회 주민복지분과 위원장은 "안산시는 한해 예산 중 40%가 넘는 4천여 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책정하고 있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

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안전망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호 안산시장장애인복지관장은 "우리 국민 모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사회안전망은 열악하고, 복지 전달체계는 비효율적"이라며, 현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밥은 충분히 주지 않고 약만 주거나 간식만 먹이는 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줄기를 재정립하고 전달체계상의 가지들을 재배치한 후에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은 "지속되는 경제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복지는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라

고 생각한다."며, 마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마을복지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우 안산시 복지정책과장은 "안산은 현재 인구는 1~2천 명 씩 줄어드는 반면 복지비용은 늘고 있고, 영·유아 출생률은 낮아지고 노인 수는 매년 2천 명 씩 증가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기 정착 및 바람직한 운영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부1동 주민 박 모 씨는 "복지 수요자를 찾아내는 것보다 복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공급자원을 찾고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최성우 좌장은 "한 번의 토론회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거대 담론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번 토론회가 '이웃이 이웃을 돕는 안산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우리 콩으로 바른 먹거리 만드는 '상록수된장마을'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수원에서 안산으로 오다보면 안산 초입에 이정표처럼 서 있는 '상록수된장마을' 간판이 보인다. 간판과 함께 줄지어 놓인 된장 항아리들은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주부의 눈길을 붙들고, 된장마을의 상록수 명칭은 안산에 들어섰음을 알려준다.

상록수된장마을은 김영석(60세) 대표가 우리 콩을 사용해 직접 메주를 띄우고 발효시켜 전통방식으로 장을 담가 판매도 하고, 장 담그는 법을 교육도 하는 곳이다. 안산이 공업도시로 발돋움하던 1980년대 초반 직장을 따라 안산으로 이

주해온 김영석 씨가 대기업 생산 관리직 10년 경력을 버리고, 1993년 지인의 권유로 본오동에서 처음 방앗간을 시작한 것이 모태가 됐다. 김 대표는 방앗간 일과 함께 '시골할머니 손맛 된장'을 조금씩 담가 팔았는데, 전통방식으로 담근 된장은 인근 주민들에게 금세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된장을 찾는 손님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것을 계기로 방앗간 일은 그만두고, 장류사업에 주력하게 됐다.

1993년 본오동의 작은 방앗간에서 시작한 상록수된장마을은 매년 30~40%씩 성장하며 2009년 지금의 사사동 자리

에 1,650㎡ 부지를 마련, 작업장과 판매장을 갖춰 옮겨왔다. 콩을 재배할 수 있는 밭 면적까지 합하면 규모는 3,300㎡에 이른다. 온 가족이 매달려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던 메주는 2014년 3월 대부도에 마련한 990㎡ 제조장에서 반자동으로 빻어, 수분과 온도를 맞춘 발효실에서 숙성시킨다. 제조장 2층에는 전통방식으로 장을 담가볼 수 있는 체험학습 공간도 마련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더 규모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히는 김 대표의 표정이 밝다.

상록수된장마을은 안산의 특산물인 대부포도를 활용한 포도고추장으로 5년 전 특허도 받았다. 또 청국장처럼 1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에 발효가 되는 콩알메주를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개발해 고추장과 막장을 담그는 데 사용하고 된장에까지 확장하고 있다. 사사동 판매장과 대부도 제조장의 50·120·300kg 항아리 300여 개에는 이 방식으로 만든 된장이 빛깔도 좋게 노랗게 익고 있다. 끓일수록 깊은 맛을 내는 전통 된장을 23년째 직접 담가 판매해 온 상록수된장마을은 매장방문판매 50%와 주문판매 50%로 2014년 3~4억의 매출을 올렸다. 대형마트 납품외에도 받았지만 본오동 로컬푸드 직매장 외에는 직접 판매를 고수하고 있다.

김영석 대표는 장류사업의 어려운 점으로 균일한 맛의 유지를 꼽았다. 옛날 집집

마다 장을 담가 먹던 시절에도 어머니들의 장 담그는 법은 한 가지로 같았지만 맛은 제 각각 달랐듯이 장을 담글 때마다 달라지는 맛을 일정하게 유지해 한결같은 맛을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겪었다고 털어냈다. "장 담그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맛을 내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콩을 불려 삶는 시간부터 장 숙성 기간까지 작업표준을 정해 비법으로 만든 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라며 일정한 맛의 비법을 설명했다.

상록수된장마을은 김 대표 외에 부인과 둘째 딸, 최근 영입한 둘째 사위까지 가족으로 이뤄졌다. 김 대표가 처음 장류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심하게 반대했던 부인은 상록수된장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 파트너가 됐다.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공부한 작은 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5년 전부터 가업을 거들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둘째 딸과 백년가약을 맺은 사위는 김 대표를 도와 생산과 체험학습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의 전통식품을 세계화하겠다는 상록수된장마을의 다부진 꿈이 이뤄지는 날을 기대해본다.

·판매: 상록수인로 870(사사동) ☎ 031-408-3507
제조: 단원구 대부왕로 717(대부동) ☎ 032-888-0706
홈페이지: <http://www.snsdj.com>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대부도를 느끼다' 승마클럽, 염전 등 볼거리 많은 대부도 해솔길 5코스

대부해솔길 5코스 - 12.2km (소요시간: 3~4시간) 베르아멜승마클럽 ▶ 말부흥 선착장 ▶ 상동방조제 ▶ 동주염전 ▶ 대선방조제



한낮의 가을별은 보약처럼 느껴진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감기와 독감 등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는 겨울을 대비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 외에 가을별로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때 이른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옷을 겹쳐 입고 나서 도착한 곳은 대부 해솔길 5코스 시작점인 베르아멜승마클럽(단원구 대부남동 24-4)이다. 드넓은 초원에 말이 여유롭게 거니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말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순한 눈빛이다.

베르아멜승마클럽은 초대형 돔을 갖추고 있어 사계절 승마가 가능하고, 66,115㎡의 야외잔디마당을 시작으로 대부도 해변으로 연결되는 외승코스가 있다. 외승코스를 체험한 사람들은 바다를 보며

말을 타는 것이 상상보다 훨씬 매력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말 끌어보기, 승마체험, 먹이 주기 등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일 체험부터 정기레슨까지 가능하며 게스트 하우스를 갖추고 있어 숙박도 가능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승마클럽을 뒤로하고 해솔길을 알리는 리본을 따라 걷는다. 대부도가 자랑하는 포도밭이 즐비하다. 말부흥선착장을 지나 도로변을 따라 걷다보니 유리섬 앞이다.

유리섬은 43,000㎡의 공간에 유리 조형 작가들이 제작한 현대 유리 작품과 다양한 혼합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200여 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유리공예시연장과 유리공예체험장, 유리공예수강을 할 수 있다. 인테리어 소품, 조형물 등 다양한 유

리제품을 주문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유리공예 시연은 하루 3회(토요일은 4회) 진행되며 유리를 녹여 액세서리를 만들거나, 블로우 파이프에 말아 올려 입으로 불면서 컵이나 미니화병을 만드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유리공예체험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까지 경기관광 우수 체험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유리섬을 나와 이제 동주염전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바닷가재를 낚는 낚시터도 만나고 동화 속 풍경 같은 대부도펜션 시티도 만난다. 단체로 온 팀들의 함성소리가 가을하늘에 울려 퍼진다. 멀리 염전이 보인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종락)'라고 노래한 류시화의 시구가 떠오를 만

큼 걱정적인 여름을 보낸 염전에는 쓸쓸함이 앉아있다. 동주염전에서 생산하는 웅기판염은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쉽게 배출되며 미네랄의 함유량이 높다. 5월부터 10월까지 소금에 대해 알아보기, 소금기동만들기, 소금채취하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단위 체험객들로 붐볐을 체험장을 지나 걸으니 제법 큰 규모의 동네가 나오고 이어 산길로 이어진다.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촉촉한 흙을 밟으니 행복감이 밀려온다.

작별을 고하는 가을과 눈인사를 하는 겨울과 함께 한 대부도 해솔길 5코스. 대부도의 보물을 제대로 만나는 길이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안산의 기업탐방 II

짧은 조리시간, 오래 쓸 수 있는 제품 - 주방용품 전문 제조업체, '클래드'



안산 목내동에 있는 (주)클래드의 소박한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탄탄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여유가 느껴졌다. 회사에 입사한지 7년쯤 됐다는 오지영 과장과 회사 설립 초기부터 엔지니어로 제품을 개발해온 박규철 총괄이사를 만나 클래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봤다. 조리시간 5분을 단축시키기 위해, 미묘한 맛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를 찾기 위해, 수백 시간의 시행착오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그 안에 있었다. 박 총괄이사의 말에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 엿보였고, 유통을 담당하는 오 과장의 눈에는 단단한 확신과 신뢰가 담겨있었다. 클래드가 지난 25년 동안 일궈온 탄탄한 토대를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었다.



클래드의 지금이 있기까지

1990년도에 설립된 (주)클래드는 클래드(clad) 메탈 소재의 통3중 압력솥 및 냄비 후라이팬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스테인리스 주방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PN풍년에서 나온 후, 클래드 메탈을 최초로 개발하고 제품화해서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가장 큰 회사로 통한다. PN풍년이 압력솥 시

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40% 차지하는 스테인리스 압력솥을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주)클래드다. 또, 클래드는 냄비와 후라이팬, 캠핑용품 등으로 범위를 넓혀, '조이클래드'라는 자체 브랜드도 만들었다. 현재 21개 매장에서 자사브랜드 2개와 수입브랜드 3개를 유통하고 있다.

클래드는 직접 자체 생산을 해서 자체 제품화를 하는 업체다. 회사 설립 때부터 클래드 메탈 개발에 참여했던 박규철 총괄이사는 클래드의 산증인으로 통했다. 회사가 어려운 고비마다 기술개발로 위기를 돌파해 나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처럼 쌓여있었다. IMF때 국내 시장이 얼어붙자 저가 프라이팬 시장 개발을 위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보름동안 타 업체에서 코팅 기술을 배워가며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일,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광 내는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반자동 기계를 직접 만들어 생산라인에 도입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던 일 등 여러 우여곡절과 함께 클래드가 성장했다.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의 장점만 합친 클래드 기술

클래드(clad)는 비철금속에 옷을 입힌다는 뜻이다. 알루미늄에 스테인리스를 입힌 클래드 메탈에서 회사명을 따올 정도로 이 기술은 (주)클래드의 핵심기술이다. 잘 부식되지만 열전도율이 높아 빠른 조리가 가능한 알루미늄의 특징과 열전도율이 낮은 대신 내식성이 좋은 스테인리스의 장점을 이용한 클래드 기술은 그 전엔 없던 통3중, 통5중 주방용기를 만들 어냈다. 밥이 빨리되고 연료가 절약되는 클래드의 압력솥은 그동안 일본,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현재 압력솥으로 시작한 클래드의 제품들은 더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가장 잘나가는 캠핑족들의 필수 아이템이 된 리저철 판구이부터 고구마, 생선을 깔끔하게 구울

수 있어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이지멀티팬, 뉴밀라노 냄비세트 등 핫한 제품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클래드의 엑스컬리버 프라이팬, 워팬이 '오 나의 귀신님'이란 TV 드라마에 협찬돼 셰프들이 쓰는 프라이팬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평생직장처럼 근무하는 회사

(주)클래드에는 장기근속자들이 많다. 생산과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80여 명의 직원 중 근속연수가 20년 이상 된 근로자는 약 15명, 평균 직원들의 근속연수도 15년 정도다. 박규철 총괄이사는 클래드에 장기 근속자들이 많은 이유를 회사의 복지제도로 설명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 퇴직을 잘 안하죠. 특히 자녀가 있는 여사원들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학교까지 모든 자녀에게 분기별로 학자금도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포상금도 받아요." 이렇게 직원들이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생산 노하우도 축적되면서 클래드의 기술이 집약될 수밖에 없다.

장인정신 깃든 명품 브랜드를 향해

현재 (주)클래드의 다양한 주방제품들은 전국 백화점 및 인터넷 등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대량구매를 원할 경우, 안산 목내동에 있는 본사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좋은 제품,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본다. 클래드에서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오지영 과장은 "가끔 압력솥 부품 교체 때문에 전화하신 분들이 '제품 너무 좋다', '10년 이상 됐는데 멀쩡하다' 며 칭찬할 때도 있다."고 말한다.

지난 25년간 기술과 경쟁력으로 성장해온 (주)클래드를 지금의 자리까지 만든 건 장인정신이였다. 박규철 총괄이사는 "국내외를 통틀어 스테인리스 하면 알아주는 명품 브랜드로 (주)클래드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의 전통 소재인 놋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보는 꿈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75-12(목내동)
· ☎ 031-491-8877 (http://clad.modoo.at)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과일·채소



○ 무의 효능

- 소화 촉진 효과 : 무 뿌리 쪽에 많이 함유되어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는 위장활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줍니다.
- 야맹증 예방 효과 : 무 잎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야맹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맛있는 무 고르는 방법

- 머리 부분이 밝은 녹색인 것이 맛있는 무입니다.
-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수염뿌리 구멍이 얇은 것이 좋습니다.

○ 무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 당근과 무를 함께 조리하면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 때문에 무의 비타민C가 파괴되므로 같이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무를 이용하여 조리를 할 때에는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무의 가운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를 무즙이나 샐러드에 이용할 경우에는 단맛이 강한 무의 가장 윗부분(잎과 가까운 부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장할 때 필수인 '무'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김연자 시인, 인문학을 말하다

“가을엔 가슴이 맑아져야 해.
들여다보고 담을 것이 많잖아”

올해 3월부터 지역 주민들과의 감성 소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공감 글판에 ‘꽃은 뜨면 당신도 피어요. 빛나는 봄, 봄을 열어요’, ‘그늘이 흠어지는 소리, 햇빛이 나에게 묻는 안부’, ‘가을엔 가슴이 맑아져야 해. 들여다보고 담을 것이 많잖아’라는 계절에 맞는 감성적인 글이 주민들의 사랑과 눈길을 끌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 행복 글판의 문구를 쓴 김연자 시인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김연자 시인은 1998년 계간 <시대문학>으로 등단, 시집으로 「막막한 어둠을 버티는 일」, 「흑백영화 이야기」가 있다.

Q) ‘행복공감 글판’에 무엇을 담고자 했나요?

A) 변방의 도시, 상처로 멍든 안산에 작은 행복 글판으로라도 시민들이 서로 보듬고 쓰다듬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역 시인으로서는 문학인이 지역에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계절에 따라 색이 트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고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순환과 맞물려 사람의 정신세계도 끝없이 깨어나고 순환하는 것이기에 봄에는 희망을, 가을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Q) 선생님의 시세계를 말씀해주시겠어요?

A) 시는 사람살이의 한 모습이에요.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첫 시집을 내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시와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면 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치열하고 간절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많아졌죠. 그 후 인생의 터닝포인트 시점인 굴곡을 겪으면서 시를 잠깐 맛보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시집을 내고 나서 더 부끄러워졌지요. 숨을 곳 없는 맨몸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세상에 나와 버렸거든요. 시인은 내안의 고통을 받아적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인이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좀 더 삶의 본질에 천착해야 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노력에 가치부여를 한 것이 문학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저와 닿아 있는 인드라마의 연과 존재를 돌아보며 세상에 대한 통찰의 고백록 같은 시를 쓰게 될 것 같아요.

Q) 깊어가는 가을에 들려주고 싶은 시는?

A) 사월에 부치는 편지, 줄시 하나 내 놓을게요. 가족의 해체, 개인주의, 빈부의 격차 등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

기 어려운 현실에 우리는 절망하고 있어요. 역류하는 시대에 맞서 우리를 이끄는 시대의 양심, 선각자들의 깨우침이 필요한 시대지요. 숨은 은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지역 작가로서 예술인들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A)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학을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술은 민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니던가요. 예술인들은 혼이 무디어지면 안돼요. 자연의 음양이 조화를 잘 이뤄야 하는 것처럼 이성과 감성도 조화롭게 발달해야 합니다. 여유 없는 세상, 급변하는 세상에 아날로그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듯 평형을 유지하는 중심이 있어야 하지요. 외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위해 문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TV와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이 방에서 홀로 즐기는 개인주의를 양산하고 있어요. 문학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고 할까요. 문학은 대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해요. 시낭송, 시에 대한 재해석과 시노래, 독서치료 등 봉사의 개념으로 대중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해요. 또, 문학을 향유하려는 시민들도 발로 뛰는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한 달에 한번이라도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고, 자기 수준에 맞는 독서를 하고 시를 읽으며 문학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Q) 여름 행복글판 문구를 쓴 김진규 시인(201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등단)이 아드님이라고 들었어요. 시인의 어머니는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A) 공부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접근시켜 주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자연 속의 작은 풀꽃의 이름을 함께 알아가고 생명의 존엄성을 몸으로 깨우치는 감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요. 또 책을 통해 올곧은 인생을 배우고, 삶의 주체성과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독서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구요. 책임기 후 점검과 확인을 할 게 아니라 부모가 독서환경과 문화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밥상머리 교육을 권해주고 싶어요. 식탁에서 예절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세상과 소통하는 이슈를 만드는 매체로 책을 선택해 토론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 하고 아이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주어야 한다는 것

이죠. 그리고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해주기 위해 부모가 개념 있게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지요.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4월에 부치는 편지

김연자

너 없이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세상의 꽃들은 그림자처럼 피고 지는데
새가 나는 먼 산에 비 뿌리듯 소문만 오고가던
사월은 물음표를 몇 장씩 달고 넘어갔다

이 개념 없고 대책 없고 욕된 시대에
환한 봄꽃 갈던 너는 바다로 가고
화분에 철철이 그 붉던 아잘레아도
네가 심어 울렸던 베란다 강남콩도
꽃꽂이 선채로 목숨을 벗었구나
푸르게 번져가던 사월 들핀에
벌써 우두커니 가을 깊어졌구나

가난이 죄인 것들은 남작하게 엮드리라고
무지렁이는 짝소리도 하지 말라고
혼자 흔들리며 부르르
주먹 쥐고 무릎을 꿇는 허공에
낙엽 한 장 칼날처럼 가슴에 처 춤을 춘다
피가 끓는다

악악대고 맨땅에 데굴데굴 굴러도
차마 이별만은 말 할 수 없는
숨이 타고 뼈가 커리는 밤들
지상에 천상에 너무 슬픈 꽃 내 아가
내 딸로 외쳐서 고마웠다
네 모습 가물거리며 날아가는 꿈속으로
부질없이 불을 부비고 꽃잎을 뿌리는
나는 못난 아비로구나
내가 진정 못난 아비로구나

하와이안 퀼트가 뭐지?

단원미술관에서 하와이안 퀼트 작품展과 자연미술협회展 열려



'제주도의 푸른밤' - 붓쇼야야코



'히노에라' - 여해영

위 볼록볼록 올라오도록 작업을 하는 특징도 있다.

이번 단원미술관에서 열리는 하와이안 퀼트전에서는 10여 명이 만든 40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와이안 퀼트 전문가로부터 기법을

전수받고 있는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퀼트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은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안산에서 전시를 하게 된 것은 여해영 씨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요코하마, 10월에는 부산에서 전시를 마쳤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핸드메이드 전시도 치렀다. 이후 또 다른 전시관을 찾던 중 안산 회원인 여해영 씨의 추진으로 단원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게 됐다.

여해영 씨는 "태교로 퀼트를 시작했다. 입덧이 끝나고 배는 불러오는데 할 만한 게 없던 차에 시간을 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아이가 태어나고 힘든 육아를 하

면서도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 퀼트의 다양한 작품과 3기 강사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4계절을 표현한 대형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자연미술협회展



'화비화몽비몽' - 유미경

제8회 자연미술협회전이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단원미술관 제1관에서 열린다. 자연미술협회는 12년 전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립되고 그 다음해에

자연미술협회는 안산국제아트페어를 만들었다. 격년으로 전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로 8회째 전시다.

한국화 서양화, 구상, 비구상, 문인화 등 평면 작업과 도자기, 공예 등 입체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자연미술협회 회원 50여 명과 전국지부 초대작가 20여 명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한다.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안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으로 하는 전시라는 점이다.

자연미술협회 유미경 지부장은 "더 많은 미술인들과 미술을 공유하고 작품활동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년 정도 그림을 그리고 전시 경험이 있는 미술인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말했다.

유미경 화가는 꽃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뿌연게 흩뿌려 그린다. 화비화몽비몽(花非花夢非夢)이란 주제로 2013년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유미경 작가는 주로 들꽃을 그린다. 아주 작고 이름 없는 들꽃이지만 생명력이 강한 함축적인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닌 그야말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강인함의 의미를 담은 유미경 화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하와이안 퀼트展

하와이안 퀼트전이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 열린다.

퀼트는 '누빈다'라는 뜻으로 라틴어로 '속을 채운봉투(culcite)'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퀼팅작업은 솜을 넣어 누벼주는 작업을 말하며, 패치워크는 천 조각조각을 이어주는 작업으로 퀼팅과 패치워크 두 가지를 합쳐 '퀼트'라고 한다.

하와이안 퀼트는 하와이의 꽃이나 나무 돌고래 거북이를 모티브로 8분의 일 대칭으로 도안을 올려서 작업을 한다. 퀼트는 보통 3팜을 뜨는 데 반해 하와이안 퀼트는 한팜한팜 바느질을 한다. 수틀에 끼

'416 진상규명의 길을 묻다' 토론평의당 열려

지난 6일, 제3회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의 '416토론평의당'에서는 '416 진상규명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416이후 진상규명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박종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 안전사회 소위원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토론평의당은 박주민 변호사와 박재철 세월호 안산시민대책위 집행위원의 제안 발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평의당 앞서 특위 이석태 위원장의 인사말을 박종은 소위원장이 대독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년 전 제정됐던 특별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그 첫 걸음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지원의 시작이며,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날 박 소위원장은 특위 활동의 기간, 인력, 예산과 관련된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 말했다. 이어 "일단 12월 중순



에 청문회를 할 계획이다. 현장의 지휘체계 문제와 초동대응 문제를 중심으로 첫 단추를 끼보려고 한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구조적인 문제부터 침몰 시작 이후 왜 구조구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신청은 11월 4일까지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8건을 특위에서 조사 개시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과거의 참사들을 돌아보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

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53년 창경호,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 때도 과승과 과적, 불법 운항을 단속해야할 경찰과 해운당국의 감독소홀, 정경유착 등이 세월호 참사와 똑같이 문제됐다. 참사가 발생한 후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꼬리 자르기'식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행태는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반복됐다. 지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참사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박재철 세월호 안산시민대책위 집행위원은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집행위원은 "여러 뜬소문과 오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생겼다."며 "안산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된 상황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2주기에는 안산시에서 416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과 인권, 안전의 가치를 지닌 시민정신과 시민현장을 만드는 지역 사회 합의운동이 진행되면 좋겠다."며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416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도시 미래를 조망하는 주민참여조례를 제정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평의당을 마치며 단원고 재육엄마의 간단한 소감을 들었다. "현실을 자각만 하면 아무 소용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우리가 원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변한다. 오늘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며 여기 왔는데, 가슴 아픈 걸 해결하려면 움직여야 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아름다운 숲'
사람을 품다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화정천' 이야기

화정천은 단원구 화정동 마산(麻山)에서 발원하여 화정동·선부동·초지동을 흘러 시화호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꽃우물마을을 지나 무명천을 합류시킨 다음 다시 남쪽으로 흐르다가 화정8교를 통과하면서 안산시 중심부인 화랑저수지를 경유한다. 고잔동 안산와~스타디움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끼고 약 5.2km를 흘러 안산천 하구부 약 0.7km 상류 지점에서 안산천에 유입된다.

화정천 유역의 동쪽과 남쪽은 안산천, 서쪽은 신길천, 북쪽은 장현천·보통천 유역과 만난다. 안산시 8개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 면적은 18.43km²이고 전체 길이는 32.59km이다. 1970년대 반월공단 조성으로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공장 오폐수, 생활하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면서 시민이 찾지 않는 버려진 하천이었으나 오염된 화정천을 원래 주인인 자연과 시민의 품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시와 환경단체, 시민의 노력으로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다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화정동에서 초지동에 이르는 화정천 6km 구간의 둔치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마리, 갯버들, 좁은잎미꾸라지, 여

뀌, 고마리, 속속이풀, 닭의장풀, 달뿌리 등을 볼 수 있다.

벽천 등 친수공간과 공원이 가능한 돌무대, 화정천 하류지역인 중앙도서관 주변에는 나무데크를 설치해 시화호에서 올라온 승어 떼와 새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하류 지역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정화된 물을 화정천 상류 지역으로 다시 돌려보내 흐르게 함으로써 하천 수심을 상시 20cm 정도 유지하여 화정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게 만들었다.

올 상반기에는 화정1교~화랑교 1.1km 구간에 조팝나무 6,400그루, 석죽꽃 1만4,000그루를 심었고 9월부터 11월까지 화정교~화정1교, 화랑교~화정2교 1.6km 구간에 황매화, 화살나무, 남천 등 관목 8,150그루를 심는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안산와~스타디움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구간에서 '화정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관하는 '제1회 화정천 생활문화제가 열렸다.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사진전, 공예·조각 전시, 경기팝스 앙상블·경기도립국악단·밴드 공연은 산책하던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화정천을 사이에 두고 무대 맞은편 관중석에서 가을을 만끽하던 가족과 연인들이 리



듬에 몸을 맡긴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사람들도 속도를 늦추고 자전거를 세우며 귀를 기울인다.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공연장을 찾은 강경중 씨(64세, 선부2동)는 "이런 축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내 고향 안산의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니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지역을 잘 가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정천이 좀 더 깨끗해지고 청계천처럼 많이 알려져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긴 가을과 미세먼지로 푸석하던 초목이 단비를 만나던 날, 청명해진 하늘을 배경으로 단풍이 붉게 타올랐다. 겨울 채비를 하는 나무들이 펼치는 잔치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갈대도 고개를 숙인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감골공원에서 길을 묻다

‘누구나 한번은 길을 잃고 누구나 한번은 길을 만든다’

감골공원(상록구 사동 산 83-8)은 1997년에 조성됐다. 86,800㎡ 면적에 퍼걸러 3개와 벤치 28개, 주차 38면의 주차장이 있고,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 단풍나무, 진달래, 빛나무, 은행나무 등 1,4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심겨 있다.

감골공원은 인접한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 주거단지 등에서 주로 산책을 위해 찾는 공원으로 능선을 따라 걸으면 휴암산을 지나 향가울산이 있는 사동공원으로 연결된다. 감골공원 내에는 최훈 선생 묘와 감골도서관, 감골시민홀 등이 자리하고 있다.

감골도서관 초입에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긴다. 도서관 입간판 옆 나무계단이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책을 반납하기 위해 잠시 도서관에 들렀다. 도서관 옆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공원 산책로가 나온다. 길을 따라 걸으면 사2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갈 수 있다. 오른쪽 계단을 다 오르고 나니 길옆의 무덤군이 보인다. 1991년 11월 2일 안산시 향토유적 제10호로 지정된 안산시 소재 최대 규모의 최훈 선생 묘역이다.

최훈(崔渾)은 양주최씨 중시조로, 자는 태호(太好), 호는 독선당(獨善堂)이며, 최자준(崔自濬)의 아들이다. 학문과 덕행, 특히 예법에 명성이 높았으며 1498년(연산군 5) 무오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조부 최담(崔潭)을 모시고 지금의 안산시 사동 감자골로 입향한 이래 이곳에서 별세한 6대 13기(27명)의 무덤과 시조로부터 상계



(6세까지) 7명의 제단이 보존되어 있으며 원형의 봉분 앞에 묘표와 석상, 망주석 2기가 있는데,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

최훈 선생 묘는 2009년 현재 양주최씨 문중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1일 이곳 묘역에서 시향제(時享祭)를 지냄으로써 전통적 유교식 집성촌의 법도를 지켜오고 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을소풍 나온 이정숙 씨(55세, 사2동)는 “최씨 문중에서 땅을 안산시에 내주었다고 해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다보니 이 길을 자주 걸어요. 야트막한 이 산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



답죠. 봄엔 진달래가 예쁘고, 여름에는 그늘이 많아 시원해서 산책하기 좋아요. 가을엔 단풍 색이 곱지요. 낙엽을 밟으며 사색하기 좋고, 눈 덮인 겨울산은 더욱 좋구요. 흙길이고 가로등이 없어 밤에는 산도 설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10여분 남짓 걸으니 사1동 주민센터, 맵이골, 사동공원으로 길이 나 있다. 정숙 씨 일행을 따라 사동공원 방향으로 따라 걸었다. 앞을 뚫구는 나무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재잘대는 소리에 뒤 돌아보니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의 구령에 발을 맞춘다. 아이들이 물기 없는 가을

나무를 쓰다듬는다. 연둣빛 새순 같은 아이들에게 한눈파는 사이에 눈앞에 급경사가 나타났다. 낙엽 쌓인 마른 흙길에 누군가 미끄러지자 일행 한 명이 손을 내민다. 손을 맞잡고 걷는 두 사람이 유치원생 같다.

경사가 끝나자 다리가 보인다. 연육교 처럼 산과 산을 연결하는 다리 아래에서 차들이 속도를 내며 지나간다. 향가울산을 오르다가 이정표 없는 갈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되돌아섰다. 감골도서관 무인도서반납기 앞에서 본 ‘누구나 한번은 길을 잃고 누구나 한번은 길을 만든다’는 문구가 떠오른다. 길을 잃을 용기가 없어 되돌아서는 나에게 길을 잃어본 사람만이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다시 다리를 건너 익숙한 풍경에 안심하는 내 앞에서 나무는 앞을 뚫는다. 내려놓을 때를 아는 가을나무가 내게 길을 묻는다. 가을이 깊어간다.

•참고문헌 : 안산시사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자연에 물들다

나무가 숲을 만나 웃고
갯벌이 바다를 만나 숨 쉬는 곳
사람이 자연을 만나 마음을 열고
자연이 사람과 함께 행복을 꿈꾸며
사람을 담고 자연을 닮은 이곳은
자연마을 안산시입니다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

진로 JOB고, 직업 JOB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안산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스스로 진로 찾는 체험의 장이 되다



11월 4일, 관산중학교 학생들 190명이 안산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이하 직업체험센터)를 찾았다. 2, 3학년 학생들은 오전·오후 2시간씩 교대로 제과제빵, 아로마테라피, 모형항공, 쇼콜라티에, 네일아트, 공예, 바리스타, 비즈, 납킨아트 체험과 진로교육을 받았다.

직업체험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코끝으로 향기가 밀려들어온다. 식물의 향과 약효를 이용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켜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자연요법인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를 체험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밝다.

"감초, 인삼, 껌도 아로마테라피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는 강사의 질문에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강사는 "허브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의 한방 역시 일종의 아로마테라피로 볼 수 있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아로마테라피는 향기를 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에 직접 사용하기도 한다. 상당수의 허브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성질이 있으며, 혈관 확장 또는 혈관 수축 등의 효능이 있어 치료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박지윤(2학년) 학생은 "향기는 그냥 잠시 스쳐지나갈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직업체험에서 향기로 기분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조향사 연봉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라며 완성된 향초를 어루만졌다.

안지정 아로마테라피스트는 "주 1~2회 수련관에서 아이들을 만난 지 3년여 되었습니다. 중고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뒤늦게 찾는 저처럼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9월, 안산시청소년수련관 3층(상록

구 삼일로 696)에 문을 연 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 진로를 계획·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현장 중심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낙준 센터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거나 직업인으로서 재능을 나누

며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 안산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운영시간 : 화요일~토요일 09:00~18:00
- ※ 휴관일 : 월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문의 : ☎ 031-412-1722
- www.ansanyouth.or.kr
- cafe.naver.com/lifeh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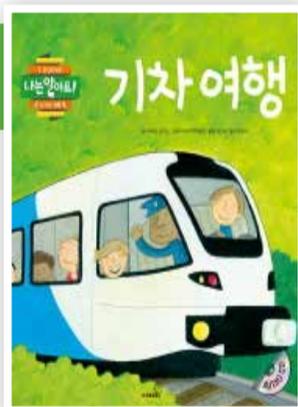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 안산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지역연계	운영협의회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발전 방향 논의
	안산시 진로 담당 교사 간담회	학교와 연계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 및 일정 등 협의
	체험처 및 재능기부자 간담회	체험처, 재능기부자 활동 사항 및 개선사항 등 협의
직업체험	청진기(현장직업체험)	학교연계 소규모(5인 이내) 일터 현장 직업 체험
	창의직업체험	학교연계 부티, 문화예술, 외식산업 등 분야별 직업 모의 실습
	진로탐색 「청춘불패」	청소년 개별 모집 진로탐색, 희망 직업별 전문 교육대학탐방 등
	진로네트워크 「캐치몽」	청소년 개별 모집 현장 직업체험 및 직업 탐색 등
	꿈을 키우는 소리 「꿈틀꿈틀」	청소년 개별 모집 직업문화체험
	꿈향진로카페	바리스타 동아리 재능기부 활동
	진로동아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탐색 활동 등
진로교육	진로교육	적성흥미 유형 검사기를 활용한 적성흥미 유형 이해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학교연계 직업인(강사) 지원
	진로상담/검사	적성흥미 검사기를 활용한 진로 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진로실태 및 욕구조사	안산시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 조사 실시
연구개발	진로연구사업	실태 및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진로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등

'책 읽는 안산' 11월 1주 추천도서 (주제 : 사색의 시간, 여행)

아동



기차여행

피에르 윈터스 / 사파리

기차를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워 주고, 기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식 그림책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아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실용적인 정보와 상식을 함께 정리해 두었다. 아울러 접혀 있던 페이지를 활짝 펼치면 기차역에서 대기 중인 커다란 기차와 기차역에서 일하는 역무원,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모습을 넓은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소년



떠나면 알 수 있는 것들

김상미 / 책미래

저자는 떠남으로써 알 수 있는 새로운 경험, 감각, 고통, 환희를 온전히 즐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 자신이 매 순간 맞이했던 떨림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 '떠나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완성시켰다. 이 책에서는 그녀가 말하고 싶었던 떠난다는 것의 의미, 그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마치 독자들에게도 자신처럼 떠남으로써 삶을 느껴보라고 권하고 있는 듯하다.

성인



나는 더 이상 여행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정은길 / 다산 3.0

여행은 떠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있다. 챙길 것도 많은 데다, 인증샷에 대한 압박, 혼자가 되는 두려움 등에 지배당하고 있어 모처럼 얻은 휴가 기간에 피로를 더 안고 돌아오기도 한다. 그렇게 여행을 피곤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책 '나는 더 이상 여행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의 저자 정은길은 여행을 통해 진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한다.

부모님께 배운 봉사, 꼭 이어가겠습니다

봉사 10년차 자칭 안산시 홍보대사 원도희 씨



안산시 자율방범 원곡1지대에서 방법 순찰을 위해 준비 중인 원도희 씨



안산시 자율방범 원곡1지대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학생과 부녀자들의 안심귀가를 돕고 주변 순찰을 하는 원도희(56세, 사동)씨의 봉사경력은 10년차다. 본격적인 봉사 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각에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출근한 원도희 씨는 제일 먼저 청소를 하며 대부분 쉬는 시간인 늦은 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집에서는 빵점 아빠죠. 쉬는 날이면 봉사한다고 나가니 누가 좋아하겠어요.”라며 웃는 원도희씨는 아버님으로부터 봉사를 배웠다.

올해 90세인 원도희 씨의 아버님은 65세에 봉사를 시작했다. 3년 전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교통봉사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지금은 자리를 보존하고 계시지만 봉사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던 시기부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님을 보며 자란 그에게 봉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0년차 봉사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원도희 씨는 “2013년 4월 27일 개장한 대부도테마파크에서 전기차 운전봉사를 하며 대부도를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대부도를 알리는 일을 했어요. 대부도는 특히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계로 저 스스로 안산시 홍보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었죠.”라며, “진입광장에서부터 청춘불패동산을 거쳐 테마 화훼단지까지 한 바퀴를 돌며 대부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덧붙여 코스별 설명과 대부도의 특징과 자랑, 계절별 다양한 축제 안내까지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내면 관광객들이 답례로 박수를 쳐주죠.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보람됐어요.”라고 말했다. 남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어찌 봉사하는데 보람만 있을까 싶어 언제 가장 속상했는지 물었다. “몇 년 전에 사동 90블록에서 항공전을 할 때였어요.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주차봉사를 하는데 젊은 여성이 무작정 주차를 하겠다고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어요. 날씨는 덥고 사람은 많아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싶은 심정은 알지만 봉사자의 말을 무시하는 언행에 많이 속상했었죠.”라며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러나올 때 집에 ‘오장육부’를 꺼내놓고 나온다고 한다.

그 대신 ‘남을 위하는 마음’은 잊지 않고 챙겨 나온다는 원도희 씨의 표정에서 봉사의 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커져 자칭 안산시 홍보대사라는 원도희 씨는 “어떻게 봉사해야할지 막연한 분들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본인의 능력과 관심에 적합한 봉사처와 연결해주니 주저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는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든 부모들의 숙제이다.

김은미 명예기자 (imai34@hanmail.net)

우리 지역의 동아리

떡향이 머무는 집, ‘묵연재’ 서예 동호회

‘묵연재(墨然齋)’는 떡, 목, 그릴 연, 집재, ‘떡향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다. ‘떡과 같이 살자’, ‘떡향처럼 살자’라는 의미도 담았다. 떡으로 글을 쓰는 데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이름이 있을까.

묵연재 동호회는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묵연재실(室)에 모여 붓글씨를 쓴다. 지난 10월 23일 오후 묵연재실에는 11월 전시를 앞두고 작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완성된 작품에 낙관을 찍으며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묵연재 동호회는 15년 전부터 이어졌다. 20여 명의 회원들이 노선덕 서예가의 지도를 받고 있다. 한문 위주의 붓글씨를 쓰는데 자기가 쓴 글을 읽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문학 강의로 함께 이뤄지고 있다. 요즘에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고문선독(古文選讀)을 공부한다. 인문학 강의는 논어를 시작으로 5년 전부터 시작했다. 회원들은 글을 쓰면서 인문학 공부도 할 수 있어 좋다고 만족해한다.

서예는 먹의 까만색으로 예술을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경쟁이 아니라 수준별로는 자기 연습이기에 초보자도 묵연재에서 배울 수 있다. 자기와의 싸움이며 자기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기에 자기 자신이 정



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서예를 시작한 지 8~9년 됐다는 장복순(여, 57세) 씨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이가 드니 어데 가서 할 게 없더라고요. 허전함도 달래고 취미를 찾다가 주민센터에서 서예를 한다는 걸 알고 시작하게 됐지요. 어느정도 하다보니 더 하고 싶어서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혼자 놀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요. 글을 쓰면서 논어, 맹자 등 옛날 글이나 고전을 보며 공부하니 더욱 좋고 잘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했다.

박선우(남, 53세) 씨는 “6년 정도 됐는데 아직 멀었지요. 서예에 늘 관심을 있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쓸수록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글 쓰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된답니다. 나이 들어 배우기 좋은 게 붓글씨 같다는 생각입니다.”라며 호탕한 웃음을 보였다.

묵연재는 20년째 붓글씨를 쓰는 회원도 있다.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보면 1년, 2년 어느새 10년, 20년이 되는 것이라고 지도 서예가가 귀뜸한다. 그만큼

재미에 푹 빠지게 되는 작업이다.

묵연재를 지도하는 노선덕 서예가는 “글씨를 잘 쓰는 기량은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묵연재 회원들은 글 쓰는 기량을 닦는 것은 물론 단체 구성원의 일부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다. 학문이라는 매개체로 끈끈하게 이어져 오는 게 쉽지 않은데 따뜻한 인성으로 잘 꾸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묵연재 회원들이 안산용신학교, 건강증진센터, 호수동주민센터 등에서 출강 봉사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무척 보람을 느낀다. 전 회원이 봉사나 출강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도자로서의 뿌듯함을 전했다.

‘서예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함께 글을 쓰며 배려를 배우고 상대를 통해 자기를 보게 되기도 하는, 느리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학문’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브라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산시의회 이모저모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문화·해양 관광자원 발굴·개발 연구회
관광 인프라 개선 위한 현장활동 지속

관광자원 연구회는 지난 2일 시 관계자들과 단원구 풍도동 육도를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도 선착장 조성 공사와 공중화장실 및 대합실 설치 공사 등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측에 당부하고, 낚시 캠핑장 건설 등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보다 앞서 관광자원 연구회는 지난 10월 22일 코레일관광개발(주)가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을 찾아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이 시설의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코레일 측이 운영 중인 인터넷 예매 시스템이 편리해 이용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으며, 2, 4인용으로 구분된 레일바이크를 실제로 탑승, 체험하면서 안전성과 승차감을 점검했다. 홍순목 연구책임의원은 “관광과 관련한 타 시군의 앞선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안산의 관광 자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그 동안 여러 곳의 현장답사를 통해 관광 자원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한만큼 안산의 관광 인프라 개선에 보탬이 되는 연구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불법 현수막 근절 앞장
위기의식을 갖고 타시 분양 홍보 현수막 막아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안산시의 심각한 도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를 비롯해, 청소행정과와 양 구청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등 8개 부서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근도시의 아파트 신규 분양 홍보 현수막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이로 인해 안산시의 인구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불법 광고 행위 과

태료 강화 ▲ 동 주민센터의 현수막 수거 업무 추진 ▲ 환경미화원·녹지 및 공원관리원들의 현수막 철거 업무 동참 ▲ 관변단체 철거업무 자격부여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박영근 위원장은 “누구누구의 업무가 아니라 안산시의 모든 총력을 다해 근절시켜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며 “당분간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안산문화원 · 조선족문화예술관과 문화교류로 우호적 관계 다져



안산문화원은 지난 10월 18일 중국 안산시 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개최하는 제12회 조선족민족축제를 공동 개최했다. 2003년 자매결연을 맺고 2007년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왔지만 대·내외적인 원인으로 소원해진 교류사업을 이번 축제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안산문화원은 경기민요·전통가요를 공연할 예술단원(박연재 외 9명)과 한·중 사진교류전에 함께할 사진작가(김진국 외 2명)가 참여했다. ‘안산시 제12기조선족민속절’ 축제는 중국 안산시 문화방송, 민속사무위원회, 조선족문화예술관과 한국안산문화원에서 공동 주최한 행사로 중국 요녕성 안산시 조선족학교 교정에서 개최됐다. 안산지역 조선족 민간단체와 관중

1,000여 명이 모여 민속축제의 즐거움을 같이 했다. 한·중 국제연합공연에서는 독창과 민요, 기악합주 등 노래와 춤으로 행사장을 즐겁게 만들었고 특히 조선족문화원 측의 물동이춤과 안산문화원 측 이윤선 씨의 중국민요 ‘모리화’ 열창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또한 조선족학교 강당에 마련된 사진전시회에는 한국축사진작가 김진국 외 작품 30점과 중국사진작가의 작품 30점이 전시되어 양측 안산시의 풍경과 삶의 모습들이 찍힌 사진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애뜻한 동경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운동장에서는 윷놀이, 장기자랑, 지게 이고 달리기 등 민속놀이가 한창이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복으로 춤과 노래를 같이 하는 모습들이 물결

을 이루었다. 중국안산시문화방송 온화부국장은 축사에서 “이번 민속절은 안산시 조선족들의 축제이자 국제간 문화교류의 성회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안산문화원 김봉식 원장은 “자매결연이 시작된 이후 중단되었던 교류사업이 이번 기회로 다시 활발히 재개되어 단순히 행사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물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
(031-481-204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 로봇승마 재활운동 프로그램... 재활 효과 높아 인기 만점

100여 가지 다양한 승마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계별로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재활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피로감을 가져왔다.

로봇승마운동은 100가지 다양한 승마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계별로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재활운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로봇승마는 운동의 재미까지 더해져 이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의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운동의 효과는 보행능력 향상과 균형 감각을 길러주고, 근력·유연성을 늘려주며, 통증은 줄이는 유산소운동으로써 자신감 회복 등 다양한 재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이다.

“이러아, 따그닥 따그닥”

허리가 아파 단원보건소 재활 운동실에서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이강용(53세·단원구 와동) 씨는 서창영 로봇승마 프로그램 담당자의 권유로 로봇 말을 타 보고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다른 재활운동과는 달리 로봇승마는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가 있어 오래전 제주도에서 말을 탔던 즐거운 기억을 상기시켰다. 20분간의 로봇승마 체험은 팍과 함께 이강용 씨의 온 몸에 기분 좋은

로봇승마 재활운동 프로그램은 2014년 안산시청 공무원연구모임에서 민원행정 부문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안산의 장애인과 뇌졸중 환자, 허약체질 노인, 자폐아 등 30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 2016년에는 운영횟수와 대상 인원을 늘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에는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은 장애인을 포함 인구대비 4.6%에 해당하는 3만5천 명의 장애인이 있

다. 단원보건소는 전국의 250개 보건소 중에서 장애인 등록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곳 중 한 곳이다. 서창영 재활운동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은 도움이 되는 재활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싶어도 이동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집 바깥으로 나오길 두려워한다. 이분들을 위해서 안산의 물리치료사들이 ‘담쟁이자원봉사단’을 구성해 2인이 1조가 되어, 월 2회씩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자가 운동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로봇승마 재활운동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단원보건소 (☎ 031-481-3506)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오늘 피곤해 보이더라 오전 10:00

응~ 어제 친구들이랑 모처럼 늦게까지 한잔 했거든
오전 10:00

어디서? 나도 오늘 모임있는데 마땅한 곳이 없네.
어제 간 곳 괜찮으면 추천해줘. 오전 10:01

우리동네 새로 오픈한 돈가스 집인데 좋은 기름을 쓰는지
단백하게 관찰더라
오전 10:01

오~ 그럼 거기로 해야겠다. 돈가스는 **문안**한 메뉴니까
다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아. 오전 10:02

전송

한글 맞춤법 시자크트포자

단백은 ‘**담백**’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담백은 ①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
② 아무 맛이 없이 싱겁다.
③ 음식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문안은 ‘**무난**’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무난은 ① 별로 어려움이 없다.
② 이렇다 할 단점이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
③ 성격 따위가 까다롭지 않고 무뎠하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김은미 명예기자 (ami34@hanmail.net)

Photo in A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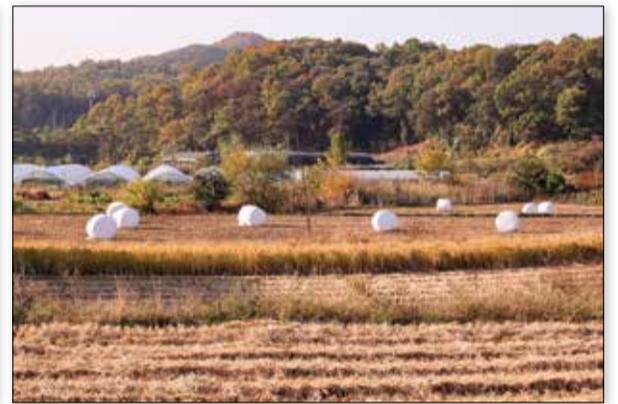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안산

양상동의 가을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10월의 어느 멋진 날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양상동의 가을

• **한줄 정보** 상록구 월피동의 법정동에 포함된 양상동(楊上洞)은 전형적인 농촌취락지역이다. 현재도 개발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오지로,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이 많은 곳이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 **한줄 정보** 지난 10월 30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안산시립예술단의 수준높은 공연이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 밤을 음악으로 물들였다.

독/자/투/고

'아름다운가게' 다녀왔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무거운 장손으로 결혼 25년차, 많은 집안 대소사를 아내가 챙겼다. 수시로 들고나는 친지들로 그릇들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이치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요리 솜씨 여문 아내는 예쁜 그릇 수집이 유일한 취미다.

바쁜 세상 따라서 우리 집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다. 부모님 생신이면 친지들을 집으로 불러 대접하느라 온

종일 분주했던 것이 이제 식당을 정해 치루는 간편 외식문화로 바뀌었다.

먹을것도 없이 비싸서 돈만 많이 든다며 때마다 어머니는 불편해하시지만 번거롭지 않고 무엇보다도 혼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느날 명절을 앞두고 대청소를 하던 아내로부터 SOS가 왔다. 안 쓰는 그릇들이 수납공간을 가득 차지하고 있으니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일단 가까운 것 생각하지 말고 사용 비중이 낮거나 중복되는 그릇들을 꺼내 놓으라고 주문하고서 퇴근하니 거실 한 칸에 마

치 그릇집처럼 넉넉하게 좌판이 벌어졌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접시, 대접, 냄비, 박스만 뜯어 놓은 홈세트, 화려한 유리그릇 등 꺼내 놓은 그릇 만으로도 웬만한 살림 하나쯤은 넉넉히 꾸릴 수 있을 정도이다. 덕분에 공간이 넉넉해졌다며 그릇 수납장을 열어 보이며 과장된 액션을 보이는 아내가 괜스리 내 눈치 보는 것 같아 "그래, 힘든데 또 고생했네..." 라고 넘어갔다.

저 많은 그릇들을 처형네로 보낼까 아니면 동생 집에 줄까 고민하다가 다들 그릇들이 넘친다기에 집 근처 아름다운 가게가 전광석화처럼 떠올랐다. 소중한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기증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해서 쓰고 판매 이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취지로 사용되는 일석삼조의 아름다운 가게.

아내에게 제안을 하니 굿 아이디어라며 물개 박수를 쳐 준다. 마트에서 큰 상자를 구해오고 반듯하게 신문지를 잘라 그릇 사이에 끼워 넣으며 포장을 하니 큰 박스로만 세 개를 채웠다. 다음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니 좋은 곳에 쓰겠다며 반갑게 맞아 주는 근무자들의 해맑은 표정에 내 마음까지도 덩달아 환해졌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 확인서 발급도 된다는 친절한 안내 서비스까지 해 준다.

아내가 소중한 이야기던 물품들을 기쁘게 내려 놓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난 그릇들은 그곳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담아 행복을 전하고 덕분에 넉넉해진 우리집 수납 공간에는 또 다른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했다.

아름다운 가게로 인해 우리 사는 세상 또한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것을 믿으며...

이명식 (단원구 광덕동로)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알아두면 유용한 소식 in 안산

<탄소포인트제>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방법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실사용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1가정 1회원 가입원칙입니다.

참여방법
인터넷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cpoint.or.kr>)에 가입

휴대장치 접속 실명인증 및 주민등록 상세정보 입력 가입 완료

• 참여시 유의사항

- 전기요금 고지서를 개별 수령하는 가정은 가입시 고객번호를 반드시 입력.
- 실시간특별로 2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하는 가정은 각각 1개의 계량기간 선택하여 참여가능.
- ※ 상여간기나 농업용 계량기는 대상에서 제외.
- ※ 도시가스 누사용으로만 사용자 대상에서 제외.

개인정보 관리

-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 변경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가입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시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재)에버그린21(☎ 599-9418, 9411)에 전화문의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인센티브 지급
선택방법 : 현금(가부 가능), 그린카드 중 택일

현금지급

- 에너지절약을 통해 발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
- 탄소포인트 가입시 인센티브 유형을 현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 탄소포인트 가입자와 인센티브 지급통장 명의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계좌 미입력시 포인트 지급 불가함

그린카드란?

-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 (모두 연회비 없음)

참여방법

- 인터넷신청 :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통해 가입-신청
- 방문신청 : BC카드 6개 은행 (IBK기업-우리-농협-대구-부산-경남 은행),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세마을금고 영업점 방문

인센티브

- 녹색계좌를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포인트 제공
- 국립공원 및 휴양림 등 전국 15개 기관 184개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

